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8.6.26.(화)	
책 임 자	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 이진수(02-2100-2880)		담 당 자	이지현 사무관 (02-2100-2881)	

제 목 :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(FSB) 총회 참석결과

1. 개요

- ☐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6월 25일(월)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(이하 FSB*) 총회에 참석하였음

* Financial Stability Board

- FSB는 '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로, G20 정상들의 요청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제기준 및 권고안을 개발하고 있음
- ☐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(BCBS)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하여
-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, 높은 부채수준 등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
- 이와 함께 가상통화(Crypto-asset*), 사이버 리스크 등 금융시장의 새로운 취약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, 그동안 추진된 금융개혁의 효과를 점검

* FSB에서는 암호자산(Crypto-asset)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

〈 주요 논의 의제 〉

- ①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및 조기경보 활동
- ② 가상통화 시장 모니터링 체계
- ③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쟁점 점검
- ④ 금융규제개혁의 효과 평가 작업

2.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

①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평가 및 조기경보활동

- FSB는 장기 금리의 급격한 변동가능성을 국제금융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취약요인으로 주목하며
 -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저금리 체제에 안주해온 선진국과 신흥국의 금융회사와 시장이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노출될 때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
 - 특히, ① 정부, 기업, 가계부문의 높은 부채수준이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취약성을 확대시킬 수 있고, ② 급격한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국경간 자본흐름의 변화가 주식, 채권, 외환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

② 가상통화 시장 모니터링 체계

- FSB는 가상통화가 현재까지는 금융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지만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문제가 발생하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
 - 가상통화 시장의 유동성 및 변동성 위험과 리스크 전달경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논의
- 또한 회원국들은 BCBS^{*}, CPMI^{**}, IOSCO^{***} 등 국제기구들의 가상통화 관련 업무 진행상황을 점검

*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, 바젤은행감독위원회

**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,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

***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, 국제증권감독기구

- BCBS는 가상통화 관련 은행의 직·간접 익스포저를 측정하고 건전성 관리 현황을 분석
- CPMI는 분산원장기술 등 가상통화에 적용되는 기술의 발전 추이와 지급결제에 활용되는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
- IOSCO는 ICO(Initial Coin Offering)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에서 파생되는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논의

③ 사이버 보안 관련 주요 쟁점 점검

- FSB는 악성 소프트웨어 등으로 인한 사이버 위협과 대형 금융 기관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논의하고
- 국제공조의 첫 단계로 이루어진 사이버 보안 용어집^{*}(Lexicon) 초안을 승인하고 의견수렴(Public consultation)을 실시하기로 함
- * FSB는 사이버보안 강화 및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사이버 용어집을 작성·발간하기로 결정('17.10월)

④ 금융규제개혁의 효과 평가 작업

- FSB는 금융규제개혁이 ①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 유인체계와 ②인프라 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해 논의하고,
- '18년말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회담에 보고하기로 함
- 금융개혁이 중소기업 금융중개, 대마불사(TBTF, Too-Big-To-Fail) 개혁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작업에 착수하고, 추가 평가과제도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음

3. 김용범 부위원장 주요 발언

□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회원국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한국 가상통화 시장의 현황 및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

○ 한국의 가상통화 시장은 한때 김치 프리미엄*이 40~50% 수준 까지 달하는 등 비이성적 투기과열이 존재하였으나,

* 한국내 거래가격과 국제 거래가격의 차이

- 「가상통화 거래실명제」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은행이 취급업소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

- 「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」에 따라 금융회사가 취급업소 및 그 이용자와 거래시 준수해야 하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등을 구체화

○ 현재, 한국 가상통화 시장은 국내외 가격차*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 과열이 진정된 상황

* 김치 프리미엄(비트코인 기준) (%) : 23.0('17년말) → 46.7('18.1.7) → 0.6('18.6.19)

□ 김용범 부위원장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국가별 독자 대응은 국가간 규제차익을 유발하거나, 투기수요가 인접국으로 이전되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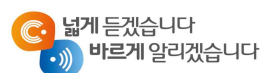
○ 국제 공조에 입각한 규율체계의 설계와 국제적 적용 등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

※ 자세한 FSB 총회 논의내용은 첨부한 FSB 보도자료 참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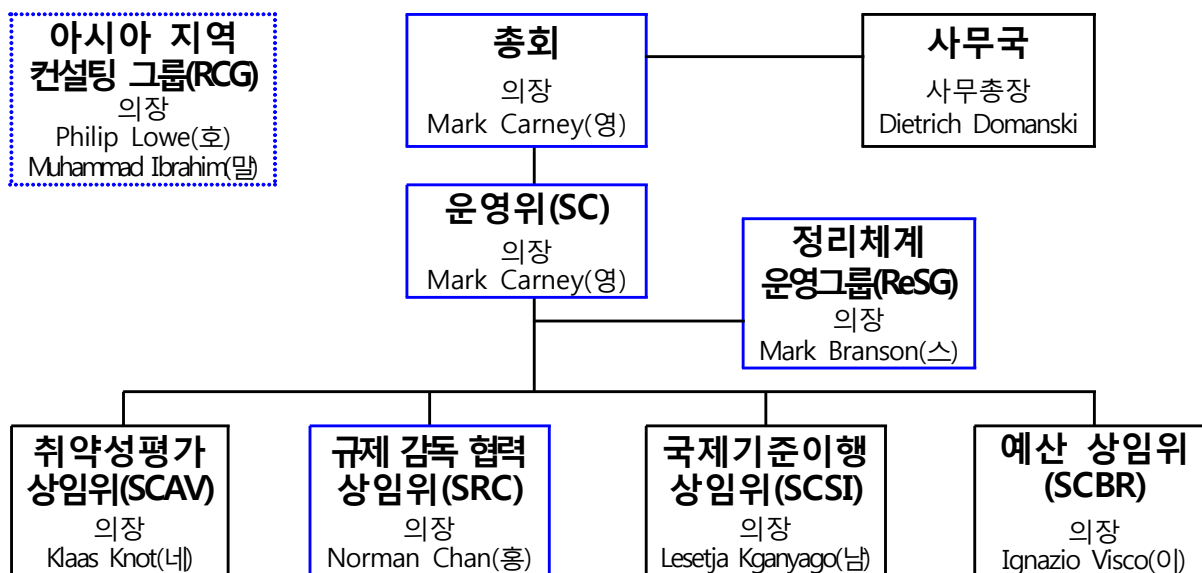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- (개요) 금융안정위원회(FSB, Financial Stability Board)는 G20 합의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며,
 -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, 합의사항 이행점검 및 국가간 협력 강화 등 수행
 - * '99년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(FSF)이 '08년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신흥국을 포함하는 G20 참여 기구로 개편, '09년 4월 출범
 - 금융위는 '09.6월 가입(한은과 공동 가입)한 이래 총회, 운영위원회, 규제·감독 협력 상임위원회 등 고위급 회의를 비롯하여
 - ReSG(정리체계 실무 그룹), CBCM(국경간 위기관리그룹), FIN(금융 혁신 네트워크) 등 실무논의에도 적극 참여중
- (구조) 모든 회원기관이 참여하는 총회와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, 분야별 4개 상임위원회로 구성

< FSB 조직도 >



- (회원현황) 24개국 + EU*의 59개 회원기관(금융당국, 재무부, 중앙은행)과 10개 국제기구**가 참여

* 미국, 프랑스, 영국, 독일, 일본, 이탈리아, 캐나다, 아르헨티나, 호주, 브라질, 중국, 인도, 인니, 한국, 멕시코, 러시아, 사우디, 남아공, 터키, EU(이상 G20), 네덜란드, 스페인, 스위스, 홍콩, 싱가포르

** OECD, BIS, IASB, CGFS, CPMI, IMF, World Bank, BCBS, IAIS, IOSCO